

도시공동체의 서사화와 소시민의 공간질서

—『장석조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형범*

— || 차례 || —

- I. 서론
- II. 도시 하층민 삶의 공간의 서사화
- III. ‘집’-‘없음’의 서사적 해석
- IV. 서사적 거리와 회상시점
- V. 결론

【 】

김소진의 『장석조네 사람들』은 서사세계의 행위주체들인 등장인물들이 관여하는 도시적 삶의 공간에 관여하는 ‘집-없음’이 만들어 낸 상실의식과 그에서 촉발되는 소규모 공동체 내부의 담론질서를 ‘셋집’을 배경으로 대도시로 변모하는 서울을 서사화한다. 이를 위해 김소진은 ‘동네’의 안과 밖을 가르는 행정구역의 경계뿐 아니라, 도시의 삶을 전제로 한 ‘집-일터’의 경계 혹은 계층의 경계로 확장되는 공간구획을 서사의 공간질서에 관여시킨다. 셋집의 공간 배치에 따른 서사는 ‘동네’의 도시성, 곧 ‘도시-동네’가 마을 공동체와 질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서사성을 지니도록 만든다. 이는 대도시 주변 소시민 공동체의 폐쇄적인 공간질서를 공동체의 경계로 삼아 그 내부에서만 유효성이 승인될 수밖에 없는 남성중심적 시선으로 진술되는바, 그러한 시선의 유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잠시 미루더라도, 적어도 이 작품의 남성 서사행위주체들에게서만큼은 자신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권력의 중심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기확신이 유일한 존재보증일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일종의 입사의식에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의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와 승인이 전제되었음을 드러낸다.

주제어 : 김소진, 소시민, 도시공동체, 서사공간, 회상시점, 도시담론, 입사의식

I. 서론

김소진의 소설적 성과에 대한 저간의 연구들이 주목했던 것은 전쟁과 이산, 그리고 새로운 가족만들기를 아우르는 분단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¹⁾, 아버지-아들을 아우르는 근대의 주체 형성의 서사를 제시한다는 점²⁾, 도시 소시민의 삶의 현장을 적실하게 재현한다는 점³⁾ 등이었다. 이상의 성과들은 김소진이 분명 90년대 이후 새로운 세계상과 마주한 우리 소설 문학의 성취로 자리매김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설득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또한 ‘김소진’이라는 한 ‘사

1) 김윤식이 김소진의 단편집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대해 논한 이래 김소진 소설 세계를 이해하는 방향타로 기능해 온 해석이 이것이다(김윤식, 『새로운 지식인 소설의 한 유형』,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숲, 1993). 김윤식은 이 평문에서 “『취잡기』에서는 아버지를 기층민중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사변적 면모를 깡그리 벗겨내었는데, 그 때문에 이 작품은 한층 심화된 이데올로기 소설의 면모를 띠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 이데올로기를 사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알 수 없음, 곧 “기거이 사람이야”의 자리, 인간의 원본적인 곳으로 파악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다.”라고 하며 이데올로기의 서사화의 새로운 실험으로 자리매김해 주었다.

2) 김종욱, 『또 다시, 아버지를 찾아서』, 『문예중앙』, 1995. 가을; 정홍수, 『허벅지와 흰쥐 그리고 사실의 자리-김소진의 소설쓰기』, 『문학사상』, 1996. 01.; 전승주, 『다시 돌아와 맞서야 할 현실의 길-김소진과 윤대녕』, 『실천문학』, 1996. 봄; 서영채, 『이야기꾼으로서의 소설가』, 『문학동네』, 1997. 가을.

3) 류보선, 『그리움과 끈끈한 생명력의 넓이와 깊이-신경숙 소설집 『풍금이 있던 자리』, 김소진 소설집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창작과 비평』, 1993. 여름; 김승중, 『미완으로 빛나는 민중의 작가-김소진론』, 『현대문학의 연구』, 현대문학연구회, 1997.

랍'과 그의 각각의 작품들의 '목소리'를 동일시하는 비평적 관점을 벗어나 있지는 않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곧 '김소진'의 실제 삶과 그의 저작물 사이에서 발견되는 '비슷함'을 '본질 차원의 동일함'이라 취급한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하겠다. 작가가 자신의 삶의 이력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공동체의 공통 경험과 절연된 채 존재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각각의 서사체를 마주한 각각의 서사체의 구성주체이자 서술행위주체로서의 작가는 분명 한 사람의 통일적 인격체로서의 자연인과는 당연히도 구별되는 낯선 시각과 경험세계를 전제함이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소진이 쓴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김소진에 의해 쓰인 작품'으로, 한결음 더 나가 '김소진으로 하여금 쓰게 한 작품'으로 관점을 옮겨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른바 '90년대 담론'이라 불릴 수 있는 시선과 관점이 동시대의 삶의 조건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여 그것이 김소진의 저작들에 어떤 방식으로 내밀하게 작동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바, 작가 김소진을 잠시 뒤로 물리고 텍스트 안의 허구세계의 가치체계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인물들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들이 드러내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개인의 삶이 펼쳐지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공간의 재현과 의미화에 주목하여 서사를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도시공동체 형성의 징후에 대한 소설적 응답으로 자리매김해보고자 한다.

본고가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석조네 사람들』의 공간성에 대해 이항대립적 의미구조로 깊이 있는 분석을 행한 주목할 연구가 있다.⁴⁾ 이 연구논문은 산동네-도시라는 이중 질곡이 서술자 '나'와 '육손이 형'이라는 인물에 의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를 안-밖의 공간의 이원성을

4) 조명기, 「김소진 소설에 나타난 도시 주변 공간의 로컬리티- 『장석조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질곡-탈출의 가치 대립으로 치환하여 당대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음을 논한다. 이러한 시각은 여타의 텍스트들에도 같은 의미화를 발동시킨다. 소문과 서사의미의 관련성 등을 산동네의 규모로 치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분명 김소진 작품 해석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간이 개인들에 의해 소비되고 의미화되는 양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도식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나’라는 서술주체가 시-공간을 관통하여 응시하는 동네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대한 해석과 서사화가 ‘나’의 공간인식에 ‘항상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전제를 강하게 승인해야 비로소 위와 같은 논리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서술주체이자 서사행위주체이면서 시공간을 두루 점유한 유일의 시점생산자인 ‘나’는 실제로 매우 불균질하고 불균형하고 비동일한 공간-장소이해를 드러낸다. 이항대립적 가치기준이 텍스트의 거대서사를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겠으나, 개별 인물과 사건의 실제 서술에서는 그러한 이항대립적이고 그 결과 가치대립적 시선으로 전이되는 데서 벗어나 수시로 장소감을 변주하는 사건과 대상물이 시야에 포착되어 서사동력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바, 소설은 실제 삶의 ‘재현’이지 ‘삶 자체’는 아니라는 너무도 당연한 전제 때문이다.

장소감 혹은 로컬리티는 신자유주의와 폭압적 경제체제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반성과 연계되는 것임과 동시에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과 단일성을 확보하는 기저의 존재조건이기도 하다.⁵⁾ 눈이 가 닿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5) Henri Lefevre는 “궁극적으로 공간의 생산(분리될 수 없게 연결된 이론적인 개념과 실천적인 현실)은 스스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명확하게 진술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 그 자체를 위한’ 진리, 완성되었으나 상대적인 진리의 증명이 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공간철학의 지향을 규정하였다(*La production de L'espace*, Economica(Paris), 2000(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예코리브르, 2011, p.125)). 그의 이 진술이 서사체의 서사행위주체이자 진술주체의 공간이해를 주체성의 형성 및

범이며 팔이 닿는 너비만큼 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며 발을 뺄 수 있는 깊이만큼 내면의 여유가 확보된다. 신체와 연결된 공간은⁶⁾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장소성을 지니고 그것이 공동체의 삶과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둔 생활 세계의 전제로 변하면서 주체가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가 점유하고 공유하는 장소의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장석조네 사람들』의 장소감은 서술주체의 시선과 서사 행위주체의 움직임과 시야의 복잡한 연관성 속에서 해명됨이 온당할 것이다. 비록 허구적 서사세계 속에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그러한 시선이 드리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삶의 진정성이 발언과 행위를 통해 형상화되고 서사세계와 마주한 독자들에게 의해 해석되는 과정에 놓인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의 ‘세계상’으로서 다루어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할 것인바, 그것이 본고가 주목하는 김소진의 『장석조네 사람들』에서는 소문의 서사화, 여성주체, 남성들의 방계화 주변화 등으로 형상화되고 서사 속에서 의미를 구성해 간다고 볼 수 있겠다.

김소진 소설의 인물과 관련하여 그동안 김소진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했던 ‘아버지’가 김소진의 개인사에서 추론된 정서적 반응에 근거하여 설명

자기이해의 차원에서 살필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6) Yi-Fu Tuan은 “환경을 제아무리 다양하게 지각한다 해도 동일한 인간 종으로서 우리는 일정한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비슷한 신체 기관을 갖춘 덕에 공통 지각, 즉 하나의 세계를 공유한다”(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p.23)고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공간지각에 대해 진술한 뒤,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은 우리 몸의 크기, 지각기관의 예리함과 범위, 목적에 상응한다”(p.37)는 진술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이해에 다다른 게 될 수밖에 없는 경험세계의 개별성을 언급한다. 본고는 이를 위 본문처럼 ‘신체와 연결된 공간’으로 표현하여 서사행위주체이자 진술주체의 공간이해의 한계 및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작가 개인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민중공동체라는 낭만적 틀 안에서 설명되는 ‘아버’리는 표상으로 곧바로 추상하기에는 소설 속의 아버지들 누구도 전형적인 가장이거나 사회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적이 없는 탓에 ‘아버상실’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근대문학의 지형도 속에서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것 또한 마땅하지 않다⁷⁾.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김소진의 『장석조네 사람들』을 도시공동체가 서사를 통해 재현되는 과정에서 서사세계의 행위주체들이 관여하는 도시적 삶의 공간의 재현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도시하층민의 ‘집-없음’과 관련된 상실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서사적 행보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하층민 공동체가 구축해 낸 발화주체의 성별 구분이 서사의 의미를 구축하는 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가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소설이 시도한 새로운 소설공간의 발견과 소설미학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영민한 시도로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인물들이 지닌 전사(前史-前事)의 특수성과 그들이 삶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서울 번두리 전셋집의 공간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7) 물론 김소진의 개인사와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성과들이 제시한 설명들이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해명해 놓은 것들의 소중한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들이 취한 태도가 텍스트의 생산주체인 작가의 목소리를 서사체의 서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적 진술체로 미학적 구조물이 환원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한 접근법임은 분명히 지적될 필요가 있다.

Ⅱ. 도시 하층민 삶의 공간의 서사화

1. 도시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동네’담론-‘동네’의 공간학

일찍이 조세희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연작으로 우리에게 ‘도시-동네’의 경계성과 도시의 공간구획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인접성-경계’로 모아질 수 있음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길 하나 건너서, 개천 하나 이쪽-저쪽으로 나뉘는 뿐, 산이나 언덕, 강과 같은 자연물이 만들어 내는 시야의 경계가 제한받지 않는 그런 ‘도시의 경계’가 그것이다. 다리 하나 건너면 이쪽-저쪽이 ‘다른 세상’으로 나뉘는 그런 삶의 공간의 분리성. 그것이 민족 정체성과 연결됨을 서사적 상상력으로 보여준 것이 구보의 『천변풍경』이었다면, 조세희는 도시의 삶이 그 경계의 은유를 구체화하고 있음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조세희에 앞서 이범선은 『오발탄』으로 이른바 ‘해방촌’의 경계를 그려내고 있다. 산업화보다 앞선 근대화 혹은 근대적 삶의 공간을 ‘내려다보는’ 해방촌의 시선을 통해 ‘도시-동네’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고전의 반열에 올라 마땅한 영화 『오발탄』이 해방촌 꼭대기에서 전쟁의 폐허를 벗어나기 시작한 60년대의 서울 도심을 부감하여 보여주는 것은 소설 『오발탄』의 ‘誤發’이 ‘삶의 공간에 적응하지 못함’이라기보다는 ‘삶의 공간에 경계가 만들어 지고 있음’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은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김소진은 그 은유를 다시 서사의 출발로 삼고 있다. ‘도시-동네’를 재현함으로써 그런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양귀자가 『원미동 사람들』로 낭만성을 지켜내려 했던 ‘도시-동네’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을 김소진은 낭만성을 거세한 자리에 남아 있는 삶의 실재를 재현함으로써 쓸쓸하게 서사로 포착해 놓은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남성-여성이 ‘뒤바뀐’ 위계

로 구축되는 ‘도시-하층민-동네’를 새롭게 꾸려 놓은 것이 바로 『장석조네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집없는’ 개인의 존재 조건에 대한 고발적 시선으로 일관한다. 반면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그러한 시선에 내재한 내부 분열을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집을 갖게 된 자’와 ‘집을 갖지 못하게 된 자’의 내밀한 갈라짐이 그것이다. 『장석조네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사이에 두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 다음을 보여준다. 낭만적 공동체가 얼마나 ‘낭만적’이고 그래서 ‘허구적’이고 그리하여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연대기적으로 소명하고 있다 하겠다.

김소진의 『장석조네 사람들』을 개인사와의 연관에서 물러서 텍스트와 직접 대면하여 초점화자의 성별과 관련지어 해명한다는 본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펼치기 위해 필요한 해석의 틀로 본고는 ‘도시-동네’와 ‘마을 공동체’의 질적 차별성에서 출발한다. 『장석조네 사람들』은 소규모 공동체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계를 ‘도시의 삶’ 속에서 발견하여 서사의 공간정보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하자면 ‘장석조네 셋방’이라는 가족 단위의 공간 경계들이 ‘장석조네’라는 삶의 공간의 경계로 묶이고 이것이 다시 서울 동북쪽 성북구 어디쯤의 산동네(실제 ‘산골’과는 구별되는 ‘동네’라는 언어 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를 배경으로 삼는다. 이네들의 삶의 공간은 이 ‘동네’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 행정구역의 경계 뿐 아니라 도시의 삶을 전제로 한 ‘집-일터’의 경계 혹은 계층의 경계로 확장되는 공간 구획을 전제한다. 이러한 공간 배치와 경계 구획을 ‘동네’의 도시성, 곧 ‘도시-동네’가 마을 공동체와 질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서사성을 지니도록 만드는 것이다.⁸⁾

장석조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동네’다. ‘마을’과는 다르다. ‘마을’은 세습적인 통시성과 개별적인 공시성을 함께 지닌다. 그러하기에 ‘마을’은 ‘중심-주변’의 삶의 공간의 위계가 존재한다. 마을 안에는 물리적 경계를 ‘장승’이나 ‘마을 입구’, ‘당산나무’ 등이 만들어 낸다. 자연물 혹은 그와 흡사한 자연의 인용 혹은 은유로 묶일 수 있는 경계지표는 인간의 개입이나 흔적을 최소화한다. 인간 스스로 자연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로 삶의 공간의 경계를 응시하고 구획한다. 그런 까닭에 ‘마을’은 생산의 기반인 논밭과 삶의 공간을 경계짓는 개천, 강, 언덕, 산으로 구획된 물리적 경계와 심리적 경계가 중첩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 낸다. 그렇기에 ‘마을’은 공공성과 집단성이 개인성과 개체성을 압도한다. 그것이 ‘시골의 마을’이다. 마을의 담론은 남성-연장 중심의 위계를 동반한다. 때로 그것은 돈이나 권력과 함께 하는 계층, 심지어 계급의 위계로 담론질서를 실재화한다. 그리고 그 위계는 세습되고 추인되고 확정되어 ‘규범’으로 공고화된다.

하나 김소진의 서사가 자리한 곳은 거대도시 ‘서울’의 ‘동네’다.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주민’으로 불린다. 이들은 그 ‘내력’과는 상관 없이 ‘지금-이곳’이라는 현재성-현장성을 공유한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來歷’을 지니고 있으면서 ‘지금-이곳’에서 ‘우연’과 ‘필연’의 복잡한 전개 속에서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이다. 아무도 서로에 대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내력’이라 부른 까닭은 이들의 前史가 ‘지내 온[來]’-‘뒷[內]’ ‘이야기 [歷]’인 탓이다. ‘이력(履歷)’이 ‘경험의 축적과 성과 혹은 성취의 기록’에

8) 사회적 공간은 절대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어 넣는 백지가 아니다. 자연 공간과 도시 공간은 지나치게 짙 차 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草稿의 상태임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다. 기호라니, 오히려 기호라기보다는 서로에게 간섭하는 무수히 많은 지시 사항, 규정들이라고 해야 한다. 그곳에 텍스트, 흔적, 글쓰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협약과 의도, 사회적 무질서-질서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질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Henri Lefevre, 앞의 책, p.227).

무게를 두는 것과 달리, ‘내력’은 ‘뒷편에 숨은 것’에 눈길을 주는 까닭이다.

이런 탓에 도시의 ‘동네’에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이야기’가 매우 풍부하다. ‘뒷편에 숨은’ 타인의 내력은 ‘나’와 ‘그’가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의 경험의 확대 혹은 적용을 통한 추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단 ‘소문’은 그 ‘출처’를 묻지 않는다. 발언되는 순간 ‘소문’은 ‘있었을 법한 이야기’로 정당화되고 소문의 소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승인되는 까닭이다. 소문의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증거’ 혹은 ‘증인’이 나타나면 앞서의 ‘승인’을 부정하면 그만이다.⁹⁾ 오로지 ‘말’로만 존재하던 것이었기에 새로운 ‘말’이 덮어 쓰면 그뿐인 것이 소문의 속성이다.

그러하기에 ‘동네’는 소문으로 서로를 인지하고 소문으로 서로 소통하며 소문으로 담론을 구성해 나간다. 소문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내력의 서사로 구체화되는 소문은 담벼락에서, 음습한 노름방에서, 질편한 선술집 술정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그러다 어느새 소문은 추정으로 그리고 추론으로 확신으로 확정으로 사실로 그러다 갑작스레 거짓으로 씌없이 모습을 마꾸어가며 마을과는 사뭇 다른 ‘동네’의 담론질서를 구축한다. 이 소문-담론의 생산-소비 과정은 언제나 ‘여성-어른’이 주도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동네’는 남성 노동력을 제도화한 근대 도시의 일부인 탓에 소문의 생

9) 니콜라스 디폰조는 진실추구 욕구와 소문을 확인하는 능력이 소문의 진위를 판별하고 ‘사실’을 확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임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소문의 진위확인을 가로막는 요인임도 지적한다(Nicholas Difonzo, *The watercooler effect: a psychologist explores the extraordinary power of rumors*, Avery(USA), 2008.(곽윤정 옮김,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pp.201-209.)). 그의 지적은 장식조네 셋집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내력의 서사에 대한 무책임’을 ‘소문’의 심리학을 통해 분석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 논제는 본고의 중심 논제에서 벗어나므로 이 자리에서는 도시민 공동체에 낯선 이로 등장하는 외부인의 ‘내력’이 어떻게 서사화되고 담론 차원에서 해석되는가를 ‘소문’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을 제안하는 정도로 한정한다.

산-소비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여가’는 여성들에게만 허락된 탓이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유희 혹은 잉여 노동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성들은 ‘가사’와 ‘부업’이라는 이중의 생산노동에 종사한다. 다만 그들의 ‘작업장’이 남성과 달리 일상 생활 공간과 구분되지 않는 까닭에 이들은 ‘집’에서 ‘살고’ ‘일하는’ 조건에 처하게 되는 것일 따름이다.

2. ‘장석조네’의 공간질서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은 셋집과 주인집을 아우르는 가옥 구조에 대해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한 텍스트에 집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사정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텍스트마다 꼭 필요한 정보들만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까닭에 장석조네 가옥구조를 일별하기 위해서는 각 텍스트에 산재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먼저 장석조네 가옥구조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곳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지붕 아래 아홉 개의 방이 한 일[-]자로 늘어서 있어 동네 사람들이 기찻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장석조 씨네 집터는 옆의 행길보다 석 자 정도는 높게 다져져 있었다. 바로 옆으로는 아무렇게나 고랑을 파 놓은 시커먼 시궁창 물이 해자(垓子)처럼 휘우듬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직 맨홀을 깔지 않았기에 뒷돌산 채석장에서 옮겨 온 두툼하고 길다란 화강암 두 개를 시궁창 위로 쓰러뜨려 시늉만으로 다리 노릇을 하게 걸쳐 놓았다.(『양은 장수 끝방 최씨』, p.13)

김소진의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의 공간구획 혹은 공간설계는 ‘서울’의 은유를 시각화하고 있다. ‘기찻집’이라는 명명은 근대 철도의 은유를 일상 공간으로 옮겨 놓은 형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한 방향으로 늘어서는 근대의 일방향성이 만들어 내는 ‘앞-뒤’의 은유이다. 이러한 형상은 근대 도시

의 기능성과 효용성의 극점에 놓인 전차-전철로 시각적 실체를 지니고 실재한다. 전차-지하철은 도시 대중교통의 핵심으로 70년대 서울이 거대도시로 스스로를 변모시켜가는 주요 표지였으며 방사상으로 확대되는 도시 구획의 외곽과 중심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어줌으로써 ‘서민’으로 ‘불리던’ 다수 민중들에게는 안전하고 개별적인 ‘집’과 분리되어 위계화된 노동 시장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하기에 ‘기차’와 ‘집’은, 거대도시 서울의 외곽에 자신들의 ‘공동체’인 ‘동네’에 거주하는 도시 노동자를 중심에 둔 시선에 의할 때, 기호적으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이율배반의 표상을 만들어 낸다 하겠다.

한편 길게 늘어선 것은 언제나 방향성을 지니며 선적 위계를 구축한다. 앞과 뒤, 이끌어 가는 곳과 끌려가는 자리라는 방향성의 위계가 작동하는 직선의 은유가 수평적이고 그물처럼 얽힌 세입자와 동네 사람들의 관계형성에 특수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안과 밖이라는 평면으로 환원될 수 있었던 ‘집’은 방향성이 만들어 내는 위계가 작용하여 세입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그들 각자가 ‘집’의 어디에 자리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그들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 낸다. 곧 기차의 선로와 차량이 만들어 내는 평면차원의 직선은 인간 행위의 전제인 공간차원으로 옮겨지면서 깊이를 갖게 된다.

일차적으로 이 위계는 ‘높이’를 표지삼아 작동한다. ‘기차집’이라는 명명은 형상에서 비롯된 평면기호이나 ‘높이’가 개입함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 낸다. 이는 서술시점의 공간을 추정하고 초점자-초점화자의 관계 설정과 서사정보의 양과 질을 정하는 데 관여한다. 곧 ‘안쪽’, ‘깊은 곳’, ‘높은 곳’과 같은 물리적 위치정보는 서사진술행위주체의 시점이 자리하는 서사적 공간지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 주고 이는 서술행위에 의해 구성된 서사체의 서사정보의 양과 질 및 서사행위주체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기능할 수 있는 서사구성상의 분석대상을 제공해 준다.

‘가장 안쪽’은 전통적 평면차원에서는 가장 깊고 안전하고 핵심이 되는 곳이었지만, 주거공간의 심장부요 위치상으로 ‘안 쪽’이며 기능상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장석조네’는 이 ‘안쪽’에 ‘높이’를 부가한다. 집 주인이 거주하는 ‘안 쪽’ 세입자들의 공간을 ‘위에서 굽어보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세입자들은 그곳을 ‘올려다보’아야 한다. 신비롭게 감춰지는 ‘높이’의 수직 위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머지 세입자들은 실재하지는 않지만 기능함은 분명히 확인되는 공간차원의 위계를 직선의 ‘기차집’으로 ‘번역’하여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분절해 낸다. 그러하기에 ‘장석조네’는 담장이 (필요) 없고 출입을 위한 경계(표지)만으로 구획됨이 가능해진다.

세입자들이 ‘해방구’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¹⁰⁾은 장석조네의 출입구에서 마당에까지 이른다. 마당을 중심에 둔 전형적인 폐쇄형(‘기차집’이라는 명명의 유래처럼 ‘一’자 형으로 상징할 수도 있겠으나, 텍스트 곳곳에 제시된 장석조네의 공간배치는 마당을 중심에 둔 폐쇄형으로 상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인바, 가장 깊은 곳에, 곧 가장 안쪽의 심부에 자리한 주인집은 실재하지만 가시권 내에 놓여 있지 않아 부재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부재가 정점에 놓이는 장석조네의 공간 위계는 안에서 밖을 향해 밀도를 낮게 가정할 수 있는 집중성을 지니는바, 안과 밖의 경계에 입사식 장소인 공동변소가 자리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장석조네로 들어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구와 공동변소를 입사식의 장소로 꾸려 놓는 것은 그곳에 단 순히 드나드는 입구여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장석조네’가 되기 위해 반

10) 소설집 전체의 가장 첫머리에 놓인 단편 「양은 장수 끝방 최씨」의 첫장면에서 장석조네 세입자들이 대문 입구 공용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이곳에서 동네 소문을 공유하고(양은 장수 최씨가 기거하는 방이 첫째 방이다), 때로는 열뭇단을 쌓아 놓고 흥정을 벌이기도 하며(「육쟁이 함경도 아즈망」), 주술적 행위를 통해 기복(祈福)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마당과 이어지는 확장된 공간을 점유하여 공동체의 입사식을 치르기도 한다(「육쟁이 함경도 아즈망」).

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으로서의 자질을 지니는 공간인 까닭이다. 입사식에 동네 사람들이 두루 참여하고 간섭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입사식이 ‘장석조네’ 사람들의 일원으로서의 입사식이 아니라 ‘장석조네’가 은유하는 대도시 서울의 변두리에 사는 ‘동네’ 사람들의 제유로서의 ‘장석조네’의 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동네’의 일원이 되는 데 꼭 필요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곳이 된다.

그 결과 ‘장석조네’는 일종의 ‘의사-해방구’ 혹은 전통적 촌락 공동체를 최후의 근대적 대도시에 이식시켜 놓은 ‘어울리지 않는 고향’의 표상이 된다. 이곳은 주거공간이면서 담론이 외계와 단절된 채 스스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독립된 담론공간이며, 그로 인해 ‘고향처럼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다고 여기는’ 순환과정이 반복되어 향수가 고조되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장석조네’ 셋집 사람들은 세입자이면서도 장소의 일시적 점유자(임차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주재자(주인)으로 행세한다. 이들에게는 집주인은 겹겹이 둘러쳐진 보이지 않는 경계의 뒤편에 자리한 ‘이름’일 뿐 실체를 지닌 주체로 대접받을 수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낭만적-해학적 공동체의 공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곳, 그리하여 산업화의 끝자락에서 시민공도체로 전환되는 도시 삶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Ⅲ. ‘집’-‘없음’의 서사적 해석

1. 두 가지 ‘집’-‘없음’

이 작품들의 인물들 대다수를 규정하는 존재론적 근거 혹은 특징은 ‘집없음’이다. 그런데 이 ‘집없음’이 home-less와 homeless의 좁은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home-less가 ‘가정 상실’ 혹은 ‘가족 부재’와 마주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homeless는 그 자체 배제 혹은 이탈, 상실 등 존재의 개체화를 앞세운 의미를 지닌다. 곧 ‘집없음’은 다시 ‘집이 없음’과 ‘집-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은, home-less에 가깝다. ‘집이 없음’과 ‘집-없음’은 우리 소설문학에서 60년대의 상실의식과 맞닿는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근대성을 삶 속에서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실의식은 단독자의 상실감으로 형상화된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은 이러한 상실감이 ‘집-없음’과 마주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옥의 이 저작에 등장하는 세 명의 남성들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쉽없이 도시의 골목길을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이 잠시 머물러 있었던 여관 방은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타인일 수밖에 없다는 건조한 현실을 확인시키는 담론의 공간이 될 뿐이다.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의 ‘아비’들 역시 ‘내 집 없음’과 ‘가정-가족 있음’의 상반된 두 속성을 모두 지닌다. 문서화된 혹은 재산권과 연결되는 ‘집’은 갖고 있지 않으나, 비록 불완전하게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가정’으로 불릴 수 있는 생활영역은 지니고 있기는 한 탓이다. 이 상반된 두 속성이 이 작품들의 남성 주체들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① 돌산 아래 채석장을 빙 둘러가면 으늑한 한구석에 석수장이들의 숙소로 쓰이는 집이 있었다. 겉은 비록 낡았지만 일반 공사장의 허드렛 함바집하고는 종류가 영관 달라 블록 변소와 가지런한 장독대는 물론 지붕도 기와로 올려 얼핏 어느 규모 있는 여염집과 다를 게 없었다. <...> 석수일이 한창인 봄부터 가을까지는 석수장이들로 북적거리지만 찬바람이 도는 늦가을부터는 일감이 그만큼 줄어드는 까닭에 거의 빈 방으로 놀려 두는 곳이었다(『별을 세는 남자

들』, p.102).

② 춘하네 안방 문지방 밑에는 사내들이 아무렇게나 끌고 온 신발들이 억
죽박죽 흩어져 있었다. 사내들은 방안의 열기 때문인지 거개가 런닝구 차림이
였고 한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 런닝구를 기슴팍까지 말아올린 채 화투장을
만지고 있었다(『돼지꿈』, p.149).

이들은 장석조네 집 입구의 공동변소 옆에서 술판을 벌이고(『양은 장수
끝방 최씨』), 철따라 비어 있는 석수장이네 집에 모여들어 계면떡을 기다
리거나(①), 춘하네 노름방에 모여들거나(②) 뿐이다. 이처럼 『장석조네 사
람들』 연작의 남성주체들은 ‘가정’을 이끌거나 중심화하면서도 자신들을
중심에 둔 담론의 권력장을 구축하지는 못한다. 이들이 타자-주체(여기서
는 자신과 같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는 공간은 ‘집이 아닌 곳’이어야 했으
며 사회의 도덕규범을 위반하는 공간(노름방, 술집 골방, 매춘굴 등)일 수
밖에 없었다. 공간의 중심에서 배제된 이들은 위반과 일탈을 통해 자신들
의 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도시적 삶에서의 상실을 스스로에게 ‘보상’한다.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자신들의 점유 영역을 확장-
유지하면 할수록 이들은 끊임없이 공동체 전체와 가족으로부터 위협-비판
당하며 배제-격리되는 과정에 놓이고 결과적으로 ‘도시-동네’의 담론공동
체에서의 한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게 된다.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숨
기려 애쓰는 것조차 고스란히 다른 이들의 시선에 붙잡혀버리고 마는 남성
들의 모습이 이 작품에는 곳곳에 흔적을 남겨 놓고 있다.

진짜가 이따금씩 도시락이 두 개쯤 들어감 직한 비닐가방을 옆구리에 삐딱
하게 끼고 느지막히 집을 나서는 광경을 동네사람들이 결눈질로 보긴 했지만
그의 말대로 일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똥똥만 잡다가 공원 같은 데서

도시락만 까먹고 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폐병쟁이 진씨』, p.81).

그들이 비워 놓은 혹은 그들을 배제해버린 자리를 여성-아이가 차지한다. 특히 ‘아들’ 세대는 그 아버지‘들’의 격리-배제의 동력에 일부분을 맡는다. 저마다 나름의 ‘옛 사연’을 지니고 있는 아버지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한 아들 세대의 시선은 직접적이며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가정-가족-집을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구축하지 못하는 어른-남성의 무기력함은 성적 불구성과 그에 상응하는 폭력성으로 표출되며 이는 아들 세대에 의한 부정과 배제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은 직접적인 아들 세대의 ‘반란’ 혹은 ‘자리차지하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아비된 아들’의 여유로운 용서를 전제하는 서술시점에 의해 서사화되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일 것이며, 우리 근현대사의 ‘피해자’라는 거대담론의 규정이 이들에 대한 비난 혹은 질책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것이 둘째 이유가 될 것이다.

80년대 도시빈민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연구¹¹⁾는 이들의 삶이 당시 서울 외곽에 형성된 하층민 거주지에서의 삶의 일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다. 첫째로는 이산 혹은 월남민의 존재가 언급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탈빈곤화의 동력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아이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작가의 개인사와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 모순의 계기와 관련된 것이다. 반면 둘째는 ‘나’라는 초점자-화자가 직접 등장하는 두 편(『비운의 육손이 형』, 『두 장의 사진으로 남은 아버지』)을 제외하고는 세대를 이어 삶의 조건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음 세대’가 언급되지 않음으로

11) 정동직, 『도시 빈민 연구』(도서출판 아침, 1985) 4장 『도시민민의 생활실태』 참조.

써 오롯이 ‘아버-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기억-회상의 서사구조를 유지시키도록 도와준다.

2. ‘동네’와 ‘셋집’의 서사공간화

이러한 ‘어른’-‘남성’의 ‘집’-‘없음’이 빚어내는 ‘동네’의 지형학은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으로 하여금 중심-주변의 지역적 공간위계를 사회구조의 계층과 대응시켜 경계로 삼아버리는 근대 도시공간의 한 지점에서 서사를 구축하도록 이끈다. 그러하기에 이 저작의 인물들은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시선으로’ 넘나드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야가 미치는 곳은 모두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장소들이다. 개천 하나(「천변풍경」)나 다리 하나(『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건너는 것으로 그네들은 언제라도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경계를 ‘몸’으로 넘나드는 ‘실행’ 차원에서는 수많은 내적-외적 ‘금기’와 규범화된 제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일을 하러 개천을 건너고 다리를 건넌다는 것과 ‘저쪽’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언제나 ‘다녀오는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저쪽’에서는 언제나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고 그저 쇼윈도우를 스쳐 지나며 ‘모던한 삶’을 시각으로 포착하고 응시하는 데 그쳐야 할 뿐이다(「날개」의 ‘나’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구보’가 그러했듯). 이들에게 허락된 도시의 삶의 방식은 ‘산책’과 흡사한 외양을 띠고 있는 ‘다녀오기’일 뿐이다. 그들이 경험하는 제한 혹은 제약은 때로는 ‘편안한 안식처’라는 환상으로 ‘이쪽’을 미화하는 자본주의의 ‘가족환상’으로 포장되어 경계 넘기를 감행하는 이들을 머뭇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 저편이 무한의 위협과 절망으로 가득찬 공포의 공간으로 이념화함으로써 ‘이쪽’의

도덕적 우위를 내면화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그 결과 ‘경계넘기’는 죽음을 댓가로 지불해야 할 정도의 커다란 실존적 결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바, 화자 ‘나’는 그 경계넘기에 ‘성공’한 듯 여겨지는 극히 드문 ‘이쪽’ 사람으로서 회상이라는 안전한 장치 속에서 ‘이쪽’을 ‘저쪽’에서 안전하게 응시하고 있다. ‘나’에 의해 응시되는 ‘이쪽’ 사람들은, ‘하층민’, ‘서민’, 등의 이름으로 탈계급화된 명칭을 부여받음으로써 위계에 둔감해지도록 세뇌된다. ‘이쪽’은 그래서 이쪽 나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자리에 여성성이 중심에 놓이는 변형된 근대 도시 소시민 공동체가 꾸려진다.

은행은 나무이면서도 암수 짝그루 종류여서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 은행은 암크루라고 알려져 있었다. 근처에 수크루가 있으면 은행열매가 열릴 직도 한데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범위 안에 다른 은행나무는 없었다. 말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암크루 바로 옆에서 한 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감쪽같이 바짝 붙어 자라던 수크루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수크루에 뭘 원귀가 씌었는지 가지에 목을 매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예 밑둥부터 싹둑 잘라냈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어느 날 벼락을 맞고 나무가 재기불능으로 타 버려서 보기 흉해졌기에 구청에서 잘라 냈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쌍과부집』, p.166).

동네 어귀의 은행나무의 내력을 전하는 이 진술은 단순히 자연발생적 촌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堂山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도시 주변부 소시민 공동체의 여성성에 주목할 경우 위 인용은 여성중심 담론공간의 징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담론공간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 ‘근육’이 목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대신하는 ‘근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 ‘가부장의 폭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가려버린 주체의 상실감이 가로지르는 자리에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말걸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여성들은 남성들의 ‘폭력적 말걸기’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태도를 취한다.

부엌을 열고 나서기 전에 부엌 한구석에 놓인 오강을 집어 들었다. 요의(尿意)를 느끼기도 했지만 미누라 손아귀에서 놓여 난 물건이 온전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픈 생각도 들었다.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다. 오줌보를 풀어 놓자 오랜만에 기세 좋게 쏟아지는 오줌줄기 때문에 제풀에 꺼덕치는 물건을 손으로 붙잡고 겨눌 필요도 없었다(『돼지꿈』, p.147).

남성 성기로 치환되는 남성성의 자기확인이 결코 의연하지도 웅변적이지도 않은 위 장면은 거세되어버린 ‘남성의 폭력’을 가운데 둔 이들의 담론 공간이 서울살이의 비극을 희극으로 전환시켜 고통을 줄여버리려는 자기 위안이자 종국의 소멸을 예견하는 역설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폭력성과 성적 지배욕망은 가부장적 질서가 지닌 여성억압이라는 시각에서 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거세되어가는 남성성이 ‘근육’에 기대어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몸짓으로 읽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IV. 서사적 거리와 회상시점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이어야 할 배변의 장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 전무한 주거형태의 특징이 빚어낸 사적 영역 부재에 대한

폭력적 회화적 은유일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공간성을 ‘공동체성’으로 은폐하며 동일성을 확인하는 공공 공간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사적 가치를 공동체의 질서로 전환시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내밀하게 은폐되고 억압된 사적 공간에의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이 작품들은 포착하지 않았다. 낭만적이며 회화적인 방식으로 ‘동화적 세계’를 안출하는 데 그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소년’의 시선에 의해, 시간적 거리와 자기합리화의 자기서사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지닌 채 낭만화된다. 이 작품 속의 개인들은 배변의 사적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음을 억지로 은폐할 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적이고 내밀한 자기 공간을 점유 또는 확보하지 못한다. 심지어 ‘죽음’으로도 그 사적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땡속으로 스며드는 향기’라는 또다른 낭만성으로 비극적 현실을 치환해버린다. ‘육손이 형’의 ‘떠뚫’은 그래서 더욱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에 의해 비로소 시간 거리를 통해 확인되는 비극성은, 그러나 ‘일상’이라는 강고한 질서 앞에서 다시 기억되기의 대상으로 멈춰 설 뿐이다.

기억되기의 대상이 되버린다는 것은 화자가 자리하고 있는 ‘지금-이곳’과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장소성을 제공한다. 시간적 거리로 치환되어버리는 장소성. 주체가 자신의 존재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출발점으로 삼는 ‘장소’로서의 ‘장석조네’, 곧 하층민들의 주거공간이자 내밀한 사적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의사-사적공간’으로서의 ‘집’은 회상의 서사 속에서 낭만적인 유년기의 기억의 장소로 보존될 뿐이다. ‘힘겨웠었다’거나 ‘그래도 그땐..’ 정도로 현재의 ‘여유’를 합리화하는 배경이 될 뿐, 기억의 서사는 회상이라는 안전한 서사적 장치의 도움으로 서사행위자로서의 ‘나’를 오롯이 보호해준다. 기실 ‘그때’에도 ‘나’는 육손이 형과 분명 거리를 두고 있어 ‘안전’했다. 육손이 형이 차지하고 있던 동네에서의 위치가 지나는 이중성, 어른-아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만의 독특한 자리매김을 ‘나’는 매

우 안전한 자리에서 공유하거나 분점할 수 있었다. 게다가 어머니의 배려를 등에 업은 탓에 육손이 형의 남다른 배려 또한 당시의 ‘나’에게는 특별한 위치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육손이 형은 나에게만 각별히도 자신의 내밀한 속내를 드러내 주었고 ‘나’는 그것을 육손이 형에 대한 기억의 원점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둘의 관계는 대학 시위 현장에서의 만남과 그 뒤 몇 차례 육손이 형과의 대면 과정에서 육손이 형의 마지막을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변하여 나에게 관여되지만 이미 나는 그러한 책임 또는 몫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저항력을 지닌 ‘성인’이 되어 있었기에 그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몫을 서사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계로 함경도 아즈매의 ‘예비 사위’가 겪는 신참례 또한 일종의 의사-공동체의 입사식처럼 기억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타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신참례를 ‘변소-제’로 희화화하여 재연하는 동네 사람들의 연대의식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무거운 억압기제들을 희화화하고 비틀어버리는 민중의 해학성으로 포장되어 일종의 해방구로서 기능하는 낯선 장소로 변소를 면모시키는 듯 보이게 만든다. 도시 하층민 주거공간이 지닌 비위생성과 사적 공간의 결여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변소’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승인받기 위한 ‘모험공간’으로 변모한다. 한쪽에 비켜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흥남댁의 감정이 고조되는 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그들의 흥겨움은 외부를 향해서는 어떤 연대도 갖지 못하고 저항도 꿈꾸지 못하는 집단의 무기력함을 잠시나마 ‘흥겨움’으로 망각하려는 ‘슬픈 몸짓’으로서의 農舞처럼 여겨질 뿐이다. 흥남댁의 딸과 사위는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 있는 것을 거부하고 동네를 떠나며 지켜질 수 없음이 경험적으로 확실한 ‘약속’을 남겨 놓을 뿐이다. 그런데 신참례를 치른 그들은 그 약속을 신성한 것으로 절대불변의 가치로 치환시켜 스스로를 위무할 뿐이다. ‘나’는 그것을 이미 ‘보아버린’ 것이다. 이미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 전체를 아우르는 ‘나’의 시선은 이 연작들에서 재현되는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뒤 그것들과의 심정적 경험적 거리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또다른 경험과 시선을 지니고 있는 초점자로서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의 모든 서사들은 실질적으로는 ‘기억’의 객관적 재현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상이 빚어내는 낭만화된 재구성에 의해서 재의미화된 결과이며 언제나 아름답게 기억되어야 마땅한 과거로서의 몫을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

V. 결론

본고는 다양한 前史를 가진 이들이 ‘우연히’ 모여 만들어 낸 도시공동체 가운데 가족 단위 바로 위에 자리할 수 있는 ‘셋집’ 사람들이 서사주체로 형상화된 김소진의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을 대상으로 도시 이주민들의 ‘공간학’과 서사 사이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서울’의 지형학으로 심화시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단초로서 이주민들의 ‘집’-‘없음’의 존재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낯선 이들을 자신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의사-입사식을 발견할 수 있었던바, 이는 ‘우연히’ 만들어진 ‘셋집’ 사람들이라는 공동체가 도시공동체의 기저를 형성할 가능성을 지닐 수 있음을 문학의 시선에서 제안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입사장치는 『장석조네 사람들』 연작이 남성 시점을 앞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질적으로는 대도시 주변 도시민 공동체의 폐쇄적인 공간질서를 공동체의 경계로 삼아 그 내부에서만 유효성이 승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작품의 남성 서사행위주체들에게서만큼은 자신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권력의

중심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장치로서 기능함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석조네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서사시점은 대도시 서울 주변부 소시민 공동체의 공간위계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도시의 형성과 기능 분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과 그것이 빚어내는 갈등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응전하고 점유하고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지탱하는 서사동력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며, 동시대인들의 삶을 향한 김소진식의 해석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독법은 이후 1980년대 이후 전개되는 다양한 도시의 삶과 개인들의 분화 양상에 대한 소설의 응전을 살피는 데 유용한 시선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종욱, 「또 다시, 아버지를 찾아서」, 『문예중앙』, 1995. 가을.
 류보선, 「그리움과 끈끈한 생명력의 넓이와 깊이-신경숙 소설집 『풍금이 있던 자리』, 김소진 소설집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창작과 비평』, 1993. 여름.
 김승중, 「미완으로 빛나는 민중의 작가-김소진론」, 『현대문학의 연구』, 현대문학연구회, 1997.
 정홍수, 「허벅지와 흰쥐 그리고 사실의 자리-김소진의 소설쓰기」, 『문학사상』, 1996. 01.
 전승주, 「다시 돌아와 맞서야 할 현실의 길-김소진과 윤대녕」, 『실천문학』, 1996. 봄.
 서영채, 「이야기꾼으로서의 소설가」, 『문학동네』, 1997. 가을.
 조명기, 「김소진 소설에 나타난 도시 주변 공간의 로컬리티-『장석조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3권 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Difonzo, N., *The watercooler effect: a psychologist explores the extraordinary power of rumors*, Avery(USA), 2008.(곽윤정 옮김,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pp. 201-209.)

Lefebvre, H., *La production de L'espace*, Economica(Paris), 2000(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p.125.)

Tuan, Yi-Fu,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pp.23-38.)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ocality of the petit bourgeois' community and the Narrative Structure in Kim So-jin's 『장석조네 사람들』(Tenants on Chang Seok-jo's House)

Seo, Hyoung-bom

This article makes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based on the petit bourgeois' community in Seoul. Kim's this text reveals the tenants' consciousness of petit bourgeois based on the homelessness or diaspora from their home. The point of narrative of this text makes the Seoul metropolitan periphery of a male-dominated petit-bourgeois community form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ity. In the view of gender and age, actual narrative functional development is dominated by female or juvenile narrator(as subject or actor in narrative). So, on the surface, male characters in Kim's texts look like the hero or dominator of community but only nominal head of household without authority in home and representative of family in community and this means that the male characters are working class in metropolitan Seoul. In the view of reminiscence narrative structure, in flash back sequence of past events, narrators' reliability is suspected as biased informer influenced by the natural limitation or unintentional distortion of memory affected by the narrative position as subject or actor in narrativethose past events and father-son relationship in the community of petit bourgeois based on the homelessness or diaspora from their home. How and why Kim's texts' narrators have unstable position in relation of father-son and narrative structure is the Kim's Schaffensmethode.

Key Word : Kim So-jin, petit bourgeois community, narrative space, reminiscence, discourse of community

서형범

소속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 hbseo@kyonggi.ac.kr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